

PA-52

정읍·보은·여수 지역 밥쌀용 신품종 안정생산 실증연구

최중서^{1*}, 백동민¹, 전아름¹, 김현주¹¹전북 완주군 이서면 혁신로 181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서론]

식량의 안정생산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재배적 특성과 생산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한 적합 품종 보급 및 생산체계 확립이 필수적이다. 본 실증연구는 밥쌀용 신품종의 신속한 현장 보급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충북, 전북, 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각 지역에 적합한 밥쌀용 품종의 선발 및 생산단지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하여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시험은 2021~2022년 정읍, 보은, 여수의 3개 실증포장에서 수행하였다. 시험품종은 정읍에서는 ‘참동진’, ‘새봉황’, 보은에서는 ‘새일품’, ‘해들’, 여수에서는 ‘청품’, ‘새봉황’으로 각 지역별로 2품종씩 선정하였다. 시비량은 10a당 질소-인산-칼리 = 9.0-4.5-5.7kg/10a로 단한번 비료로 처리하였으며, 병해충 방제는 해당 지역의 기본방제 기준에 준하였다. 각 지역별로 시기별 벼 생육특성, 수량 및 수량구성요소, 쌀 품질, 농업인 반응 등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쌀 수량은 1년차에는 각 지역의 2개 품종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2년차에는 정읍, 보은의 경우 품종간 수량에 차이가 없었지만 여수는 청품이 새봉황보다 18% 낮은 수량을 나타내었다. 등숙률은 모든 지역·품종에서 88~92% 수준으로 연차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천립중은 여수에서 청품이 1년차에 비해 7%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품종은 연차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쌀 품위는 정읍, 여수는 1년차에 비해 완전미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보은에서는 해들의 분상질립 함량이 1년차 대비 2배 정도 높았다. 여수 지역에서 청품은 천립중, 아밀로스 함량이 품종 고유 특성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것은 등숙기 평균 기온이 약 25°C로 고온등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농업인 반응은 기존의 지역 재배 품종에 비해 수량이 많은 품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수량이 비슷하더라도 병해충 방제 효과가 좋거나 연차간 수량 변화가 적어 안정생산이 가능한 품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사]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연구사업(사업번호: PJ016103)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Corresponding author: E-mail, hbell7@korea.kr Tel, +82-63-238-5363